

여성의 경험이 갖는 역사성과 정치성

페미니즘을 주제로 한 세 책

김은실 ·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최근 우리 사회에서 페미니즘은 여성운동 혹은 문화적 유행, 지식담론 등의 여러 얼굴로 대중적인 인식을 확보한 편이다. 이러한 페미니즘 이미지의 대중화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남녀평등이 어느 정도 성취됐고, 따라서 남녀 문제는 개인의 차이 문제라고 생각하게 만들 뿐 아니라 여성학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까지 보게 한다. 여성은 보편적인 인간·국민·가족의 범주에서 설명될 수 있고, 또 그래야 남녀가 평등하게 취급되는 것이라고 보는 경향마저 있다.

《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 《자유를 위한 탄생》, 《근대성과 페미니즘》은 남녀가 다른 경험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근대를 성찰하고, 다시 쓰는 과정에서 왜 여성의 경험이 문제인지, 그리고 여성들의 경험을 가시화·정치화하는 것이 어떤 현실과 미래를 만드는지 논한다.

페미니즘 논쟁에서의 '근대성'

근대성 논의는 한국사회를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90년대 중반부터 등장했다. 하지만 조한혜정은 급격한 압축적 근대화를 경험한 한국사회의 근대성을 80년대부터 논해왔다. 여성이 갖는 개인적 권리와 자율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에서 근대성의 논의는 중요하다.

이번 책에서 조한혜정은 좌파운동과 여성운동 모두 퇴각하고 있는 현실에서 역사를 만드는 여성들의 행위주체성에 대해, 그리고 페미니즘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계속 페미니스트의 이름표를 단다는 것에 회의적인 심기를 드러내며 페미니즘과 자신을 관계짓는다. 하지만 한국의 근대화가 구축한 획일적이고 단일한 국민·가장·남자의 주체를 해체하기 위한 여성 주체의 가시화·정치화는 여전히 중요한 논제다.

이 책에 수록된 논문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은 한국 사회가 겪은 급격한 자본주의적 근대화와 불균형 발전에 의한 일상성과 신뢰구조의 파괴, 의사소통체계의 붕괴, 단일 주체의 구축에 대한 강박성, 합리적 관계의 불가능성을 고발하고, 어떻게 근대적인 공공성을 만들어 의사소통구조를 구축할 것인가에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IMF 관리

이 책들은 남녀가 다른 경험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근대를 성찰하고, 여성들의 경험을 가시화·정치화 하는 것이 어떤 현실과 미래를 만드는지 논하고 있다.



체제의 충격이 가져온 위기와 이를 관리, 지배하는 우리 사회의 주도 담론을 분석한 <불균형 발전 속의 주체 형성: 한국 근대화에 대한 여성주의 비판>의 논문에 가장 잘 드러나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성찰적 근대성이란 파행적 한국 근대화의 악순환적 고리를 끊는 것인데, 그것은 '주체'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모색으로 조한혜정은 천천히 죽어가는 사회구조를 내버려둔 채 딴짓하기, 딴 데서 놀기, 주변에서 놀고 있는 감수성 있는 다원주의적 집단을 발굴하고 복돋아주기, 그래서 복수의 주변을 복수의 중심으로 만드는 것 등, '공략하기보다 낙후시키기'라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자신의 글쓰기 방식과 함께 방어진 민족주의와 시장적 패권주의가 힘을 겨루는 무성찰적 공간에 틈을 내는 것이고, 여기서 여성은 청소년과 함께 중심적인 단일 주체를 해체하는 주변이다.

《자유를 위한 탄생》은 민권운동과 여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페미니스트 역사가자인 사라 에번스가 역사를 만드는 하나의 실천으로 쓴 미국 여성의 역사다. 그녀는 이 책에서 15~16세기의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들로부터 1990년대 힐러리 클린턴에 이르기까지 미국 역사에서 여성의 활동, 여성과 남성의 관계가 전개되어 온 방식 등에서 미국 여성의 역사적 역할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존재라는 보편적 여성 개념이 거부되고, 다양한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 역사적 경험과 공헌이 기술돼 있다. 에번스는 인종·계

급·종교·민족·성적 기호 등에 따른 여성들의 다양한 사적 경험과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관계의 역동성에 초점을 두면서 각 시대의 다양한 여성들을 미국역사의 구체적인 맥락에 위치시키고 있다. 그리고 여성들의 실제적인 경험과 한 사회에서 여성이라고 말해지는 규범적 존재로서의 여성이 얼마나 불일치하는지, 여성들이 사회적 존재로서 역할을 확대시키면서 공적 영역을 어떻게 창출해 왔는지, 가부장적인 정치·문화적 담론과 불평등한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등을 기술했다. 또한 역사 속에서 여성들의 활동·투쟁을 검토하면서 미국사회의 공사, 그리고 남녀의 정의가 얼마나 모호한지, 그리고 그것 자체가 항상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생성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역사구성의 주체를 이해하기 위해

리타 펠스키의 《근대성과 페미니즘》은 성별 정치학, 즉 페미니즘에 입각해 근대성을 다시 읽어본 연구서다. 펠스키는 근대와 포스트모더니즘을 남성적 규범을 중심으로 구조화됐다고 보고 이를 시대구분으로 삼는 글들에 대한 비판으로 이 책을 쓰고자 했다. 그녀는 근대성 담론에는 동질적인 문화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변화 과정에 대해 서로 상충되는 다양한 반응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면서, 페미니스트들이 억압적 근대성과 전복적 포스트모더니티라는 대립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여성들이 근대의 논리 바깥에 위치하고, 페미니즘의 논의가 근대성의 외부에

서 오는 것처럼 말하는 방식에 반대한다. 펠스키는 근대의 개념에 비판적인 페미니즘 역시 근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여성해방을 위한 투쟁이 근대화 과정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여성에 관한 남성작가와 여성작가들의 근대 텍스트 분석에 의해 드러내고자 했다.

《근대성과 페미니즘》에서 분석하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유럽의 다양한 텍스트들은 만약 남성의 경험을 모범적인 것으로 택하지 않고, 여성에 관한 혹은 여성이 쓴 텍스트를 중심으로 근대를 검토한다면 근대성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여성적인 현상에 핵심적인 중요성을 부여한다면 근대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이러한 작업은 근대를 이해하는 기존 방식에 어떤 차이를 가져올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펠스키는 근대성은 단일한 시대정신으로 종합할 수 없는 다차원적인 역사적 현상을 포괄한다고 전제하면서 근대를 구성하는 주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형성 과정에 기여한 다양한 하위주체들의 입장에서 근대를 다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럽 텍스트를 분석하는 펠스키의 방식은 우리사회에서 남성작가들의 텍스트에 재현돼 있는 여성들, 민족·민중 소설에 나타난 여성들, 문단에서 높이 평가되는 여성작가들이 재현하는 여성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텍스트들을 어떻게 맥락화시킬 것인가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이 세 책들은 문제의식의 출발점과 그 내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여성주체가 경험하는 근대가 왜 보편적 근대 경험과 동일하게 논의될 수 없고, 또 논의되서는 안되는가를 다루면서 여성의 경험이 갖는 역사성과 정치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여성학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근대의 사회사나 문화사를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유용한 텍스트다. ❖

《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

조(한)혜정 지음
또하나의문화/A5신/358면/9800원

《자유를 위한 탄생》

사라 에번스 지음/조지형 옮김
이화여대출판부/A5신/520면/16,000원

《근대성과 페미니즘》

리타 펠스키 지음/김영환·심진경 옮김
거름/A5신/380면/13,000원